

## 광주 코로나 이틀째 두자릿수... 성탄절·연말 대확산 '비상'

종교시설·노인요양시설·방문판매시설 등 방역수칙 강화  
오늘부터 정규예배 외 종교활동 금지·요양시설 면회 못해

광주에서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종교활동 관련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사 방문판매 업체로 보이는 유통업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광주시가 21일 자정을 기해 종교활동과 노인요양시설, 방문판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지역감염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광주 북구의 한 유통업체 관련 확진자다. 이 유통업체에서는 지난 18일 직원(광주 843번)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가족, 지인, 방문자 등 14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현재까지 21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178명이 음성, 22명이 진행 중이다. 이 업체 사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다단계 사업 설명회 등 유사 방문판매 활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통해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도 광주에서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지난 18일 5명에서 19일 4명으로 줄었고, 이날 현재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광주시는 일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종교 활동, 노인 및 정신 요양시설, 방문판매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0시부터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 외의 소모임과 식사, 다른 지역 교류·초청 행사 등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규 예배는 좌석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했다. 노인·정신요양 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기존 저녁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던 방침을 21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미등록·미신고된 불법 방문판매 및 후원판매, 다단계 시설은 집합 금지하도록 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24명, 방문판매 관련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진단검사를 받은 접촉자만 757명이다.

김 부시장은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면서 종교 활동 및 감염 취약 시설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과 모임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서원 일대에서 지난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0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 행사에서 호수 한 가운데에 코로나 19로 지친 이들을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정부 "3단계 없이 코로나 확산세 꺾어야"

격상해도 '락다운' 고려 안해  
일부 상향 주장 설득력 없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3단계 거리두기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접어들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단계 격상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불러올 큰 파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 (대중 조치)를 보면 상당 부분,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사회·경제적 여파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1차장은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최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등의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KTX 2단계 연내 착공...목포~서울 2시간 10분대

무안공항 경유...시공업체 선정  
인천·수원발 KTX 연내 착공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건설 사업이 연내 착공한다. 오는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나주 고막원과 목포 임성리 구간에 고속철도 노선을 깔고 무안국제공항역을 신설, 목포와 서울(용산·수서)을 2시간 10분대로 연결하게 된다. 전남도는 2년 앞당겨 2023년 준공하기 위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20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반 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철도 신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5789억원(국고 50%, 철도공단 50%)을 투입해 2025년 끝마칠 예정이다. 고막원~임성리 신설노선은 분선 44.1km와 정거장 1곳(무안공항)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번 착공구간은 기타 공구 구간(제1·3

·6·7공구, 26.4km)으로, 노반 공사비 6653억원이 투입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용산·수서에서 목포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13분에서 2시간10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국토 서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에 KTX 역사가 신설되면서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수원발 KTX 사업도 연내 착공한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안산·화성지역에 KTX 열차가 직결 운행된다. 총사업비 4238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공사가 완료되면 송도~목포, 송도~부산을 각

각 2시간10분, 2시간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를 연결해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2772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완공 목표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목포, 수원~부산 간 이동시간은 2시간10분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인천·수원발 KTX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남지역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우리 몰라" 술 모임에 음주운전 >6면

손흥민 푸스카스상 '연말 최고의 선물' >18면

생명의 땅 순천이 낳은 작가 김승옥·정재봉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영광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 국립심뇌혈관센터 전라남도 유치 확정

총 사업비 490억원(2021~2023년)

장성군

연구, 예방·재활, 진료 교육, 정책관리·기술지원

전라남도